

高麗時代의 絹織物과 그 製織에 관한 研究

경원대학교 의상과
전임강사 조 효 숙

目 次

I. 序論	IV. 結論
II. 高麗時代に 使用된 絹織物の 一般的 高찰	
III. 高麗時代に 使用된 絹織物の 製織法 高찰	

I. 序 論

高麗時代에는 上代社會의 발달된 織造 및 染色技術이 계속 발전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宋·元과의 활발한 직물 交역을 통한 새로운 기술 습득으로 다양하고도 섬세한 직물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직물에 관한 문헌자료는 高麗史 高麗圖經 등을 비롯한 소수의 문헌에 직물명칭과 용도가 간단히 기록되어 있을 뿐 직물에 관한 설명 및 제직법 염색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실물자료는 文殊寺, 鳳林寺 服藏遺物을 비롯한 몇군데 복장유물 중에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직물 조각들이 수편 나왔으나 그 직물과 연관된 기록이 없고 製織法에 관한 우리나라의 문헌도 없어 구체적인 명칭과 제직에 관하여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시의 직물에 관한 실질적인 이해 및 고증을 위해서는 직물종류에 따른 제직방법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려시대에 사용된 견직물의 실태와 각 직물의 특성을 알아보며, 중국 직물의 제직법을 통하여 고려직물의 제직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고려시대의 문헌과 중국문헌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宋·元代와 일본의 平安 鎌倉時代의 출토유물 보고자료를 참고하였다.

제시된 組織圖는 「中國歷代織染繡圖錄」 「中國紡織科學技術史」 「染織」에서 발췌하였다.

II. 高麗時代に 使用된 絹織物の 一般的 高찰

고려시대 견직물의 공급상황은 자체내의 제직에 의한 공급과 중국과의 빈번한 교역에 의한 공급으로, 朝鮮時代に 비하여 매우 화려하고 다양한 종류의 견직물을 제직하고 사용하였다고 생각한다.

당시에 다양한 종류의 견직물을 제직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로는 첫째 「東文選」中的 崔 滋의 글 「三都賦」의 내용이다. “鷄林(慶州)·永嘉(安東)엔 뽕나무가 우거졌네. 봄날 누에칠제 한 집에 만발이요, 여름이라 실 자르면 한 손엔 백 타래씩. 뽑을제 엉킨실을 다듬어 짜내니 철걱철걱 저 북소리 벼락인가 우뢰런가. 羅, 綃, 綾, 線, 縑, 縹, 縹, 縹, 縹 불면 날 듯, 연기인가 안개인가 희나흰빛 눈인가 서리인가. 靑, 黃, 朱, 綠으로 물들여 錦, 綺, 繡, 縵 만들어 公卿과 士女들이 입을 끌 제, 바스락 바스락 떨치면 번쩍하네. 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고장, 보물이 가득찬네.”라고 하여 지금의 경주, 안동을 중심으로 羅, 綃, 綾, 線, 縑, 縹, 縹, 縹 등의 연기와 안개처럼 얇고 고운, 흰색의 絹織物類와 錦, 綺, 繡, 縵 등의 先染 및 縵染紋織物이 제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織物の 생산은 官營工匠과 自營工匠 農村

寺院工匠 등에서 이루어졌는데, 官營工匠에는 掖庭局과 雜織署에 각각 錦匠, 羅匠, 綾匠, 絹匠, 縠匠, 繡匠 등이 소속되어 있으므로²⁾ 당시에 錦, 羅, 綾, 絹, 縠, 繡의 絹織物이 각각 분담되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大陸地域에 朝貢한 織物記錄에 의하여 고려 시대에 제작된 견직물을 알 수 있다.³⁾ 「高麗史」 「高麗圖經」, 「高麗史節要」 등의 各種文獻에서 발췌한 내용을 정리하면 宋, 元, 晉에 錦, 段, 綾, 羅, 紗, 紬의 絹織物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특기할만한 직물은 惠宗 元年(945)에 晉에 보낸 紅地金銀五色線織成日月龍鳳襖段, 紅地金銀五色線織成花鳥 縠錦, 宋에 보낸 鎖金紅梅花羅 등인데, 晉의 황제가 칭송하기를 “織紋은 美麗하며 貝錦으로 紋彩를 이루니 檀華가 無色할 정도며”⁴⁾ 라 하였으니 당시 제작기술이 매우 발달했음을 말해준다.

넷째 지방에서 貢納한 貢物을 통하여 견직물 제작을 알 수 있다. 즉 安東京山에서는 眞絲, 帛, 紬를 공납하였고⁵⁾ 晉州에서는 綾, 羅, 絲를 생산하여 궁중에 공납하였는데, 공물로 보낸 綾, 羅가 거칠어 진주 수령을 파직시키기도 하였으니⁶⁾ 매우 정교한 綾, 羅가 제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徐兢의 「高麗圖經」에 고려에는 紋羅,

花綾, 錦, 縠 등을 기교있게 직조한다고 하여 무늬있는 직물의 제작을 말해준다.

高麗時代에 使用된 絹織物은 이와같이 고려에서 직접 제작한 직물이외에, 中國과의 무역에 의한 수입 견직물도 일부를 차지하였다. 中國과 高麗와의 무역은 대개 고려정부를 대상으로하여 綾 羅 絹 錦 등의 각종 비단과⁷⁾ 磁器 書籍 등을 바치고 고려의 토산품을 하사받는 일종의 進獻 貿易과 고려의 일반 상인을 대상으로 비단 약재등을 교환하는 민간교역으로 나눌 수 있다. 견직물은 진현무역과 민간교역의 중요한 품목이었다.

민간교역의 견직물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老乞大」에는 고려상인이 中國北京에서 小絹 한 필에 三錢, 綾 한 필에 二兩 주고사서 鴉靑과 小紅色으로 염색하였는데 絹 한 필 염색에 二錢 들고 陵 한 필 염색에 아침색은 삼전, 소홍색은 이전든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綿子 한 근에 六錢에 사며, 이들은 고려 王京에 팔때는 물물교환 형식으로 絹 한 필은 고려의 細麻布 두 필을 받고 팔며, 綾 한 필에는 鴉靑色布 여섯 필을, 小紅色布로는 다섯 필을 받고 판다고 한다.⁸⁾ 고려상인이 중국에서 구입한 비단의 종류는 千靑胸背緞, 柳靑膝欄緞, 鴨綠界地雲緞, 鸚哥綠寶相花緞, 黑綠天花嵌八寶緞, 草線蜂蜂梅花緞, 栢枝綠四

1) 「국역 동문선 I」, (민족문화추진회) p.61

“雞林永嘉 桑柘莫莫 春而浴蠶 一戶萬箔 夏萊纈絲 一指百格 始纈而縹方織以樂 雷梭風杼 脫手霹靂 羅絹綾縠 織綉縛縠 煙織霧薄 雪皓霜白 青黃之朱綠之, 爲錦綺爲繡縠 公卿以衣 士女以服 樞輿粹縠 披拂縠赫是誠天府 國寶 錯落……”

2) 「高麗史」 志卷 30

3) 민길자 「織物の 種類에 관한 研究」 「教育論叢」 第6輯(국민대학교 986)

4) 「高麗史」 世家 卷2

5) 「高麗史 節要」 卷16

민길자, 「韓國傳統織物の 纖維學的 物性에 관한 研究」(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7) pp.71~72

6) 앞책 卷20

7) 進獻貿易中에 고려에 수입된 견직물은 다음과 같다. 雜色川錦: 列仙細錦, 天下樂暈文錦, 雜花暈文錦, 合羅鴈細錦, 盤毬雲鴈細錦, 欄鴈雲池細錦, 簇四金鷄大錦, 翠毛獅子大錦, 黃獅子大錦, 寶昭大錦, 色花羅: 明黃色花羅 藍黃色花羅, 淺粉紅色花羅, 深粉紅色花羅, 杏黃色花羅, 梔黃色花羅, 淺色花羅, 梅紅色花羅, 紫色花羅, 雲碧色花羅, 色大綾, 色小綾, 色花紗(色花羅와 동일한 色相의 종류이므로 생략한다) 白絹, 綺

8) 「老乞大 朴通事 諺解」, (아세아문화사) PP.23~25

「老乞大」는 고려말부터 조선초기의 중국어 학습지도 明初(洪武年間)에 고려의 상인이 인삼 모시포등을 팔에 싣고 중국 북경에 가서 팔고 그곳 특산물을 사서 귀국할 때까지의 기록으로 저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조선 시대에 그 諺解本이 있다.

季花緞, 蒼白骨朶雲緞, 桃紅雲肩緞, 大紅織金緞, 銀紅西蕃蓮緞, 肉紅纏枝牡丹, 黃筆管花緞, 鵝黃四雲緞, 柳黃穿花鳳緞, 麝香褐膝襪緞, 艾褐玉塼堦緞, 茶褐暗花緞, 官綾, 絹, 羅, 紗類가 있으며, 그밖에 白湖州絲, 花拘絲 등의 비단실도 구입하였다. 그중에 深淸織金胸背緞이나 淸水緞과 같은 특수한 緞類는綾, 絹보다 비싸서 각각 五兩 四兩에 산다고 기록되었다.⁹⁾

또한 고려에서 가져온 인삼 毛施布 黃布를 중국에 팔 때는 上等毛施布는 한필에 一兩, 低等毛施布는 한필에 六錢하며 上等黃布는 한필에 九錢, 低等黃布는 한필에 五錢에 팔았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⁰⁾ 따라서 당시의 직물가격은 고려의 布類보다는 중국제의 絹, 綾, 緞이 비싸며, 그중에서도 緞이 제일 비싸고 다음은綾이며 絹이 제일 싸지만 같은 종류의 직물에서도 생산지와 염색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를 두었다. 고려의 布類는 毛施布가 黃布보다 비싸고 鵝青色布보다는 小紅色布가 더비싸게 거래되며 같은 布中에서는 실이 가는것이 굵은것보다 비쌌다.

다음은 고려시대에 많이 사용된 견직물을 조선시대와 비교하고자 한다. 고려시대의 문헌에 가장 빈번히 보여지는 견직물은 羅이며, 다음으로 絹, 錦, 綾이다. 특히 그 중에 羅의 사용은 주목할만하다. 羅布는 王의 冕服과 公服은 물론 百官服에도 가장 광범위하게 입혀졌으니 羅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매우 유행하였던 衣料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사용된 견직물은 紬, 緞, 紗, 絹가 수십종씩 있음에 비하여 羅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¹¹⁾

錦, 綺의 직물도 고려시대까지는 중요한 고급 紋織物이었으나 緞의 출현과 함께 서서히 퇴조하고, 조선시대부터는 錦의 종류중에 織金錦이 남아서 緞, 綾, 紗 등의 직물에 織金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織金된 직물도 과거의 織金錦과 동일한 종류는 아니었다.

평직으로 제작된 직물중 絹, 縑, 縐, 縐, 素 등은

조선시대에 그 명칭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직물들은 조선시대에 없어진 것이 아니고 紬의 명칭이 수십종으로 늘어나며 그 일종으로 포함되어 발전되었다고 생각한다. 단 絹는 그대로 그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縐도 조선시대에는 기록이 없는데 중국에서도 縐紗라고¹²⁾ 호칭한 점으로 미루어 조선시대에 紗의 일종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고려시대에 사용되고 제작된 견직물은 조선시대에 비하여 다양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고려직물은 조선시대에 와서는 일부는 紗, 紬, 緞類에 포함되어 발전하기도 하였고 일부는 퇴조하여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Ⅲ. 高麗時代 사용된 絹織物의 製織法 고찰

당시에 製織된 絹織物 종류의 형태를 알기 위하여는 그 製織法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제작법에 관한 문헌기록이 없고, 실물 자료의 제작법에 관한 연구도 없기 때문에 중국 및 일본의 出土織物 보고서와 織物史에 관한 문헌등을 참고로하여 그 시대 織物의 특징 및 제작법을 고찰하였다.

1. 羅

羅는 문헌에 의하면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왕의 公服을 비롯한 百官服에서 軍服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된 매우 중요한 衣料였으며 幕 幃 蓋 등에도 널리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의 羅의 명칭은 色에 따라 緋羅, 早羅, 靑羅이라 하며, 실의 종류에 따라 生羅 金羅 黼金線羅라 하고, 무늬에 따라 金紅梅花羅 文羅 花羅 大文羅라고도 하였다.

羅의 풀이는 「廣韻」에 “羅綺也”라 하며 「集傳」에는 “畢小岡長柄也, 畢岡也”라 하며 「說文」에 “以絲罽鳥也, 從網, 從羅 古者芒氏初作羅”라 하며 「釋名」에서는 “文疎羅也”라 하고 「一節經音義」에서는

9) 앞책, pp.170~181

10) 앞책, pp. 233~235

11) 민길자(1986), 앞논문, pp. 116~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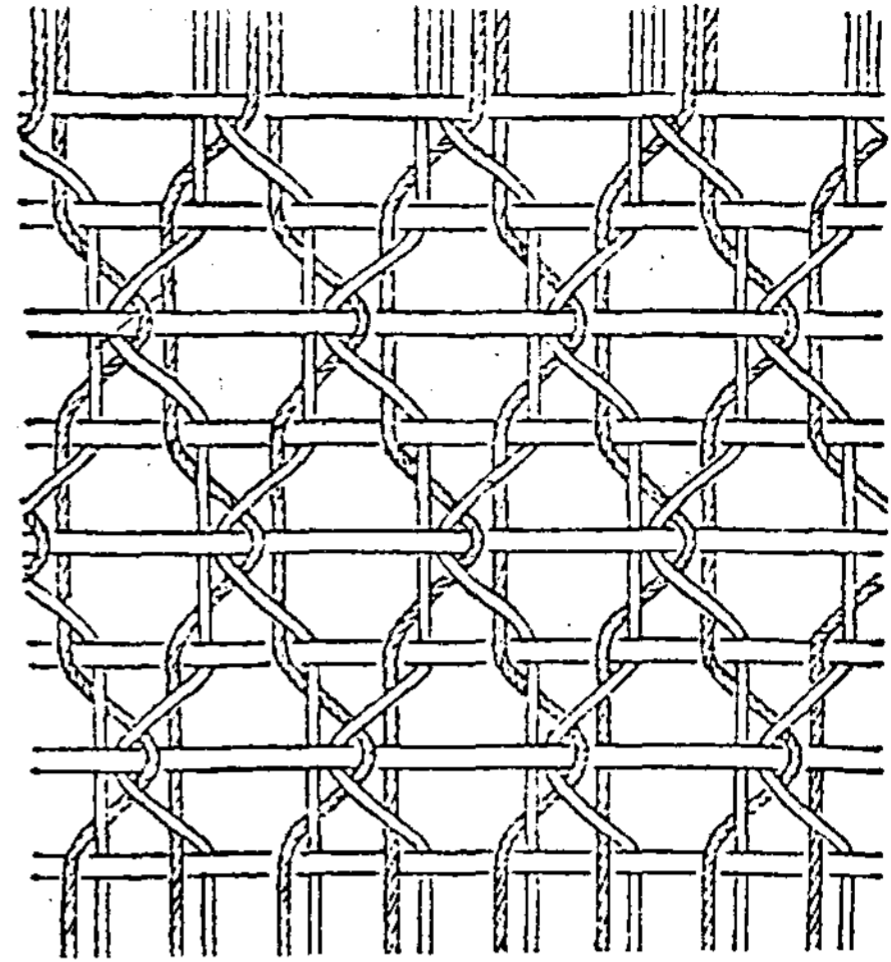
이양섭 「朝鮮時代 宮中衣服 梁色研究」, 「研究報告」 11집(건국대학, 1988) pp. 110~113

12) 高漢玉(1986), 「中國歷代織染繡圖錄」(上海科學技術出版社) p.234

“鳥網曰羅”라고 하였다.¹³⁾

즉, 羅는 絞經組織으로 된 透孔絹織物로 經系를 엇갈리게 교차하여 고추모양의 구멍이 생기는 가볍고 얇은 견직물이며 경사 위사간의 구멍은 紗에 비하여 견고하고 안정되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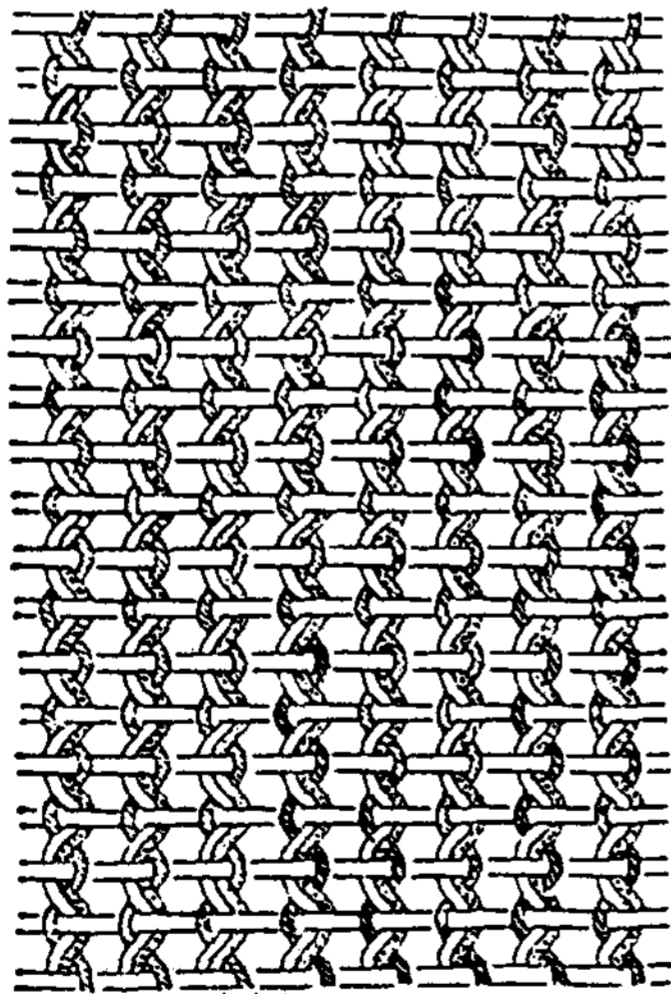
羅의 종류는 무늬의 유무에 따라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무늬가 없는것은 素羅라하고 무늬가 있는것을 花羅로 호칭하였다. 素羅는 교차된 경사의 을수에 따라 두개의 경사가 서로 꼬인 것은 二經絞羅, 세개의 경사가 서로 꼬인것은 三經絞羅 네개의 경사가 꼬인 것은 四經絞羅로 나누기도 하며, 經系의 꼬임과 꼬임사이에 들어간 위사의 을수에 따라 三絲(梭)羅 五絲(梭)羅 七絲(梭)羅로 나누기도 하였다.¹⁵⁾(圖 1, 2) 중국에서는 周代와 春秋戰國時代에는 비교적 간단한 二經絞素羅를 제작하였고, 秦, 漢代에 四經絞羅를 제작하였고, 唐·宋代에 三經絞羅 바탕에 平紋 斜紋 浮紋의 무늬가 있는 직물을 짤수 있었다. 明·清代에는 橫羅가 발전되어 三絲羅 五絲羅 七絲羅가 유행하였다고 한다.¹⁶⁾ 또한 元代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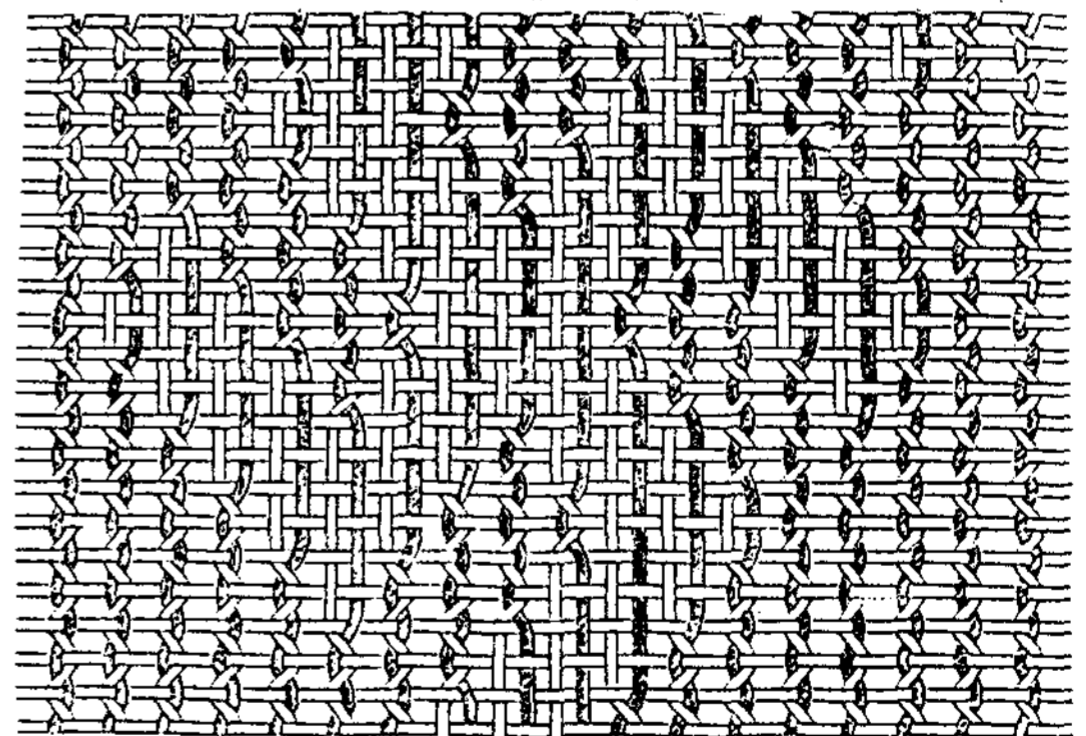
〈圖 2〉 四經絞羅
(中國紡織科學技術史)

金의 사용을 좋아하여 銷金縷羅가 유행하였다.¹⁷⁾

고려시대에 기록된 花紋羅는 그 조직이 지금의 紗組織처럼 경사를 2~4을씩 꼬아가며 그사이에 위사를 넣어 형태를 고정시키며, 무늬부분은 꼬인 경사를 다시 平織으로 짜는 방법으로 현재의 甲紗 年庫紗 熟庫紗도 일종의 花紋羅라고 생각한다.(圖 3)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羅織物은 현재의 紹組織으



〈圖 1〉 三經絞羅
(中國紡織科學技術史)



〈圖 3〉 二經絞花羅 (中國紡織科學技術史)

13) 민길자, 앞논문, p 123

14) 高漢玉(1986), 앞책 p. 15

15) 陣維稷(1984), 「中國紡織科學技術史」, (科學出版社), pp. 296~305

高漢玉(1986), 앞책, p15

16) 陣維稷(1984), 앞책, p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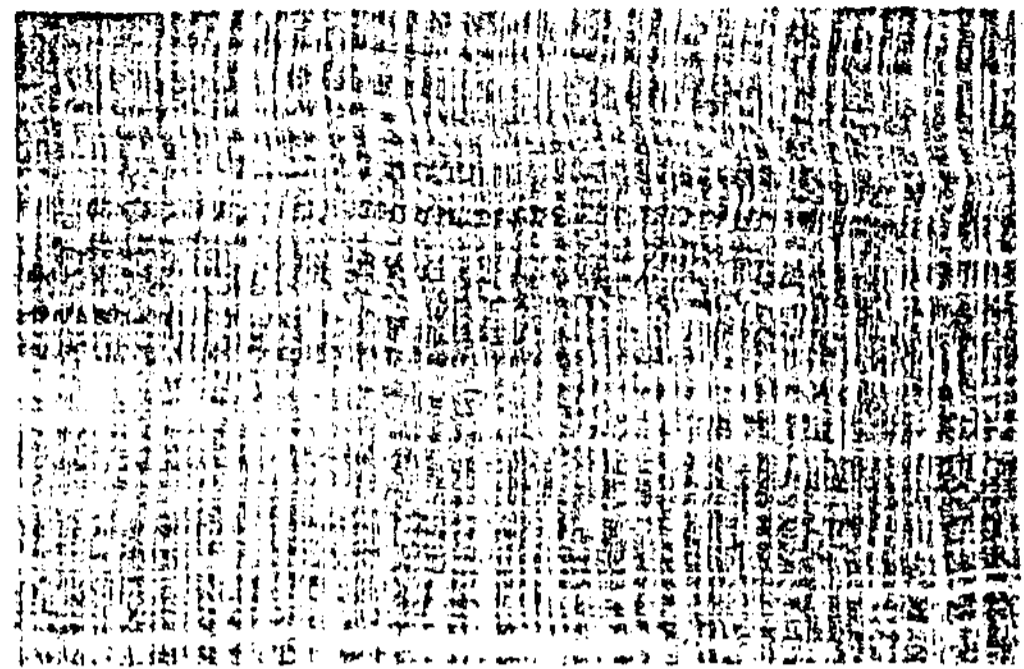
17) 高漢玉(1986), 앞책, p16

로 짠 宧羅만이 전통직물로 남아 있으며 위사수에 따라 3월러 5월러 7월러로 부른다. 이것은 明靑代에 발전된 橫羅(三絲羅 五絲羅 七絲羅)와 같은 것으로 고려의 羅와는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삼국 시대 및 고려의 羅는 경사를 2~4올씩 꼬아서 사선이나 마름모형의 기하학적 무늬를 만들기로 하고, 平織 浮紋織과 함께 變化紗織을 이용하여 다양한 꽃 구름등의 무늬를 넣기도한 매우 화려하고 다양한 직물이었다고 생각한다.

2. 紗

고려시대의 紗는 羅에 비하여 중요한 衣料로 사용된 기록이 없고, 幪頭나 帽子用으로 혹은 겉옷보다는 中單用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직물생산을 하는 官榮工匠에도 羅匠은 있으나 紗匠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널리 사용되지 않은 소박한 직물이라 생각된다. 문헌에 기록된 紗의 종류는 白紗, 皂紗, 紫紗, 素紗, 緋紗, 紅紗와 같이 色에 의한 분류일뿐 무늬의 명칭은 없었다.

紗의 풀이는 「功韻」에 “絹屬也… 絹而輕者”라 하며 古籍과 古詩中에 “方孔日紗” “方孔紗”라 전해진다.¹⁸⁾ 즉 고대의 紗는 경사위사가 평직으로 교차되며 매우 疎하고 네모형의 구멍이 생기도록 제작된 직물 이라고 한다.¹⁹⁾ 중국의 戰國時代, 漢, 唐代의 출토직물은 일반적으로 75% 정도의 透孔率이 있는 平織으로 직조된 가벼운 직물이다.(圖4) 遼寧省朝陽西周墓에서 出土된 직물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경사위사의 밀도가 20/cm 정도로 성글게 짠 것이며 고려와 같은 시기인 南松黃昇墓에서 출토된 직물중에도 平織으로 성글게 짠 紗가 수점 발견되었다.²⁰⁾ 紗는 일반적으로 秦, 漢, 唐代에 유행하였는데 이때까지는 平織의 素紗에 印花 혹은 각종 緋染으로 무늬를 표현하였다.²¹⁾ 그러나 宋代에 이르러 平織의 紗와



〈圖 4〉 紗의 실물사진(中國歷代織染繡圖錄)

함께 暗花紗 有艾虎紗 栗地紗 茸紗등의 무늬있는 色花紗類의 기록도 보이는데 이것은 이전의 二經紋花羅와 같은 것으로 宋代부터는 2올의경사를 꼬은 紗組織을 부분적으로 사용한 직물도 紗라고 호칭하기도 하였다. 더욱기 明, 靑 이후에는 과거의 暗花羅를 暗花紗로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어²²⁾ 紗의 개념이 古代와 차이를 두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古代의 紗는 평직으로 성글게 짠 직물을 말하였으나 고려시대 말부터는 두올씩의 경사를 꼬은 紗織으로 짜되 平織과 같은 외관을 하여 方形의 구멍이 있는 직물도 紗라 호칭되었다고 생각된다. 더욱기 조선시대 직물종류에는 羅의 종류는 적어지고 각종 문양의 紗가 많아진점으로 미루어 고대의 무늬있는 羅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紗의 영역으로 호칭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었다. 즉 중국은 明靑代 이후, 우리는 고려말기부터 羅를 紗와 혼돈하여 호칭하기 시작했고 결국 고려시대의 다양하고 화려했던 紋羅는 점차 그 범위가 축소되어 현재의 宧羅만이 남게 되고, 반면 紗는 숙고사, 갑사, 순인 생고사등 다양한 종류의 직물명칭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18) 앞책, p30

原田淑人(1967), 「漢之朝の服飾」(東京:東洋文庫), p27

19) 高漢玉(1986), 앞책 p15

일설에 의하면 紗는 직물사이의 구멍으로 모래발 沙를 투과시켜 이와같은 명칭이 나왔다고도 하며, 혹은 絹, ■등에 비하여 동일 면적에 경사 위사의 밀도가 적어 ‘糸’와 ‘少’의 合意로 紗가 되었다고도 말한다.

20) 박경자, 「福州南宋黃昇墓 出土服飾 研究」, 「生活文化研究」第三輯(성신여자대학교 1988), pp.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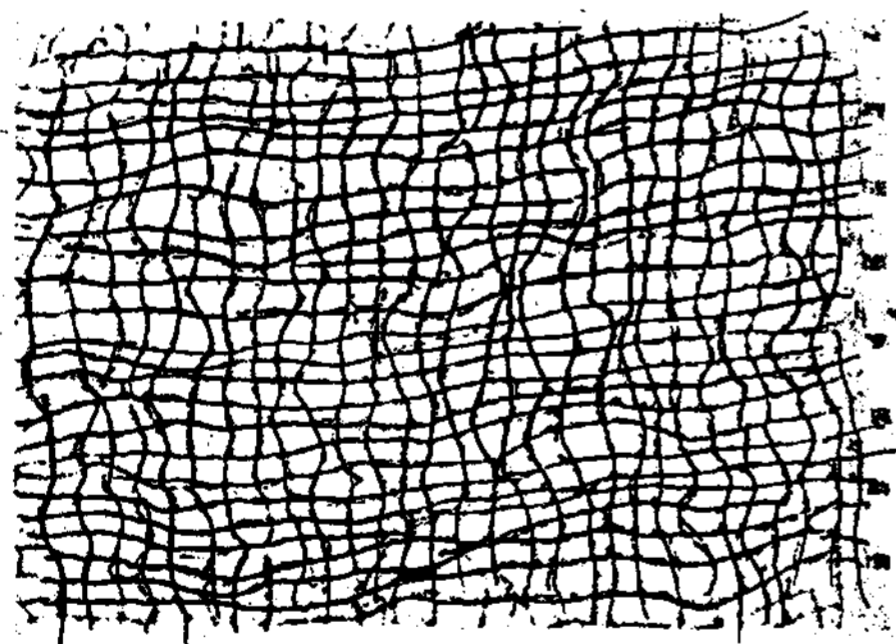
21) 「絲綢之路」, (新疆維五宋 自治區 博物鐘), 圖 57, 58, 59, 60

22) 高漢玉(1986), 앞책, p234 p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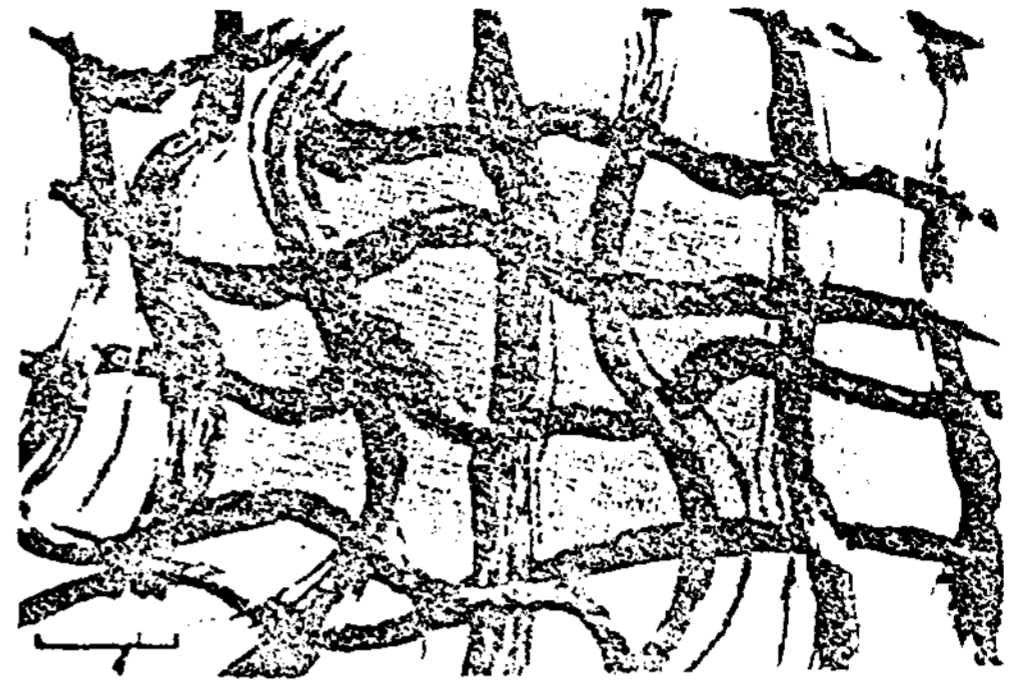
3. 縠

高麗時代に 縠의 기록은 「高麗史」 「增補文獻備考」에 下賜品이나 交易品으로 사용된 것이 있으며, 「東文選」에는 縠을 제작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다른 견직물처럼 일반화된 것은 아니며 조선시대에 와서는 縠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다.

縠 풀이는 「釋名」에는 “縠其文足足而皺視之如粟縠紗也, 方孔者”라 하며 「玉篇」에 “紗爲縠”이라 하며 「漢書」에는 “紗縠紡絲而織之, 輕者爲紗 皺者爲縠”이라 하며 「增韻」에는 “皺紗曰縠”이라고 설명하였다.²³⁾ 또한 日本의 「纖維字典」에는 縠紗는 縮緬을 말한다고 한다. 이와같은 해석과 중국 및 일본 출토 직물 자료를 종합하면, 縠은 紗와같은 평문조직으로 된 絹織物의 일종인데 生絲의 ㄱ꼬임을 2000tpm 이상 강하게 하며, ㄱ꼬임의 방향을 S.Z의 반대로 하여 직조한 다음 煮練하여 표면에 오글오글한 주름효과를 나타낸 직물이다.²⁴⁾ 예를들어 長沙左家塘44號墓에서 出土된 縠도 경사의 ㄱ꼬임을 2000~2400/m로 강하게 하였으며 각각 S 방향과 Z 방향으로 ㄱ꼬아 교대로 혹은 일정한 규칙의 순서대로 배치하였고 위사는 S ㄱ꼬임을 주어 皺紋이 명확히 보이도록 하였다.²⁵⁾(圖 5,6) 현대의 絹織物中에 經系, 韓系에 S,



〈圖 5〉南宋黃昇墓出土縠의 확대사진 (中國歷代織染繡圖錄)



〈圖 6〉圖5의 국부확대 사진(中國歷代織染繡圖錄)

Z방향의 강연생사(2,700tpm정도)를 교대로 두 올씩 넣어 제작후, 정련하면 실의 ㄱ꼬임이 풀리면서 직물 표면에 크레이프 효과를 나타내는 ‘크레이프 드신 (Crepe de Chine)’이라는 직물과 ‘조오젯 크레이프 (Georgette Gepe)’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Crepe de Chine의 명칭은 프랑스어로서 chine은 중국의 秦나라를 말하는 것으로 중국 縮緬織을 모방하여 제작한데서 유래하였다.²⁶⁾

4. 錦

고려시대의 錦은 衣服 및 침구등의 장식에 사용되는 중요한 彩色紋織物이며 宋·元에 貢物로 보내기도 한 귀한 것이다. 당시에 제작된 錦은 紫, 綠, 赤, 紅, 全白 全靑等 色에 따라 호칭되거나, 金銀線織成 錦 縠錦과 같이 사용된 실의 종류에 따르거나 혹은 貝錦, 紋錦, 練鵝紋錦, 毳紋錦과 같이 문양에 따라 호칭된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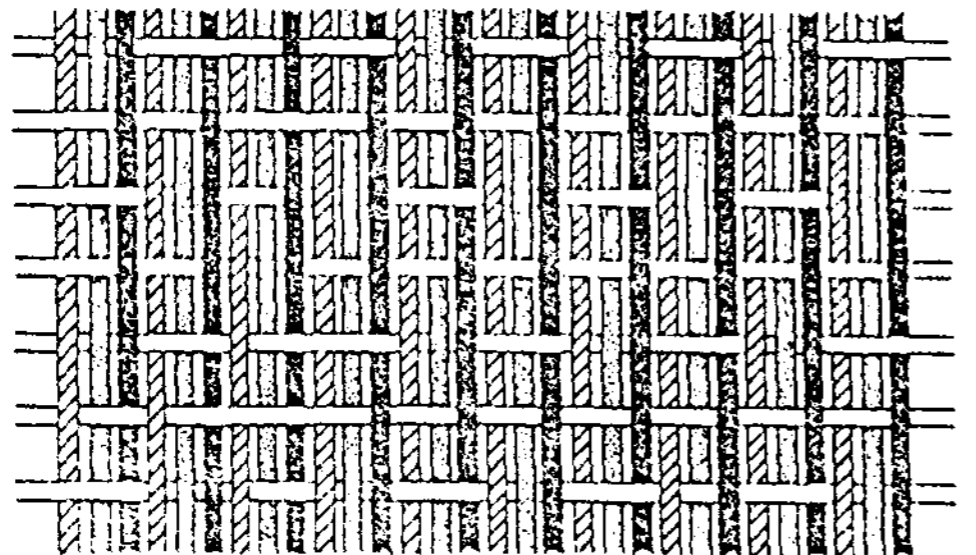
錦은 문헌상으로 詩經 左傳時代에 보이며 出土品은 戰國時代것이 있어 綾이나 緞보다는 비교적 일찍 발달되었다.

錦은 견직물중 그 제작방법이 매우 복잡한 것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점 제작상의 발달된 양상을 보이며 그 종류도 매우 많아진다. 제작방법에 의한

23) 陣維稷(1984), 앞책, p92 p294
 24) 高漢玉(1986), 앞책 p15
 北村哲郎(1988), 「日本의 織物」, (源留社), p94
 25) 「長沙新發見的 戰國絲織物」, 「文物」, 1975, 제2기
 26) 「의료소재 II」 (한국의류학회 1989) p98
 27) 「高麗史」, 世家
 「高麗圖經」

錦의 종류는 經錦, 緯錦, 織金錦, 織成錦, 重錦(宋錦), 改機등으로 구분되어진다.²⁸⁾

經錦은 2~3色の 경사를 번갈아 사용하여 무늬를 나타내는 초기방법으로 唐이전까지 많이 사용되었다. 漢代에는 국부적으로 경사를 덧붙이는 掛經錦이 나와 문양의 입체적 효과를 내었으며 이것이 발전되어 絨圈錦이 되었다.²⁹⁾(圖7 圖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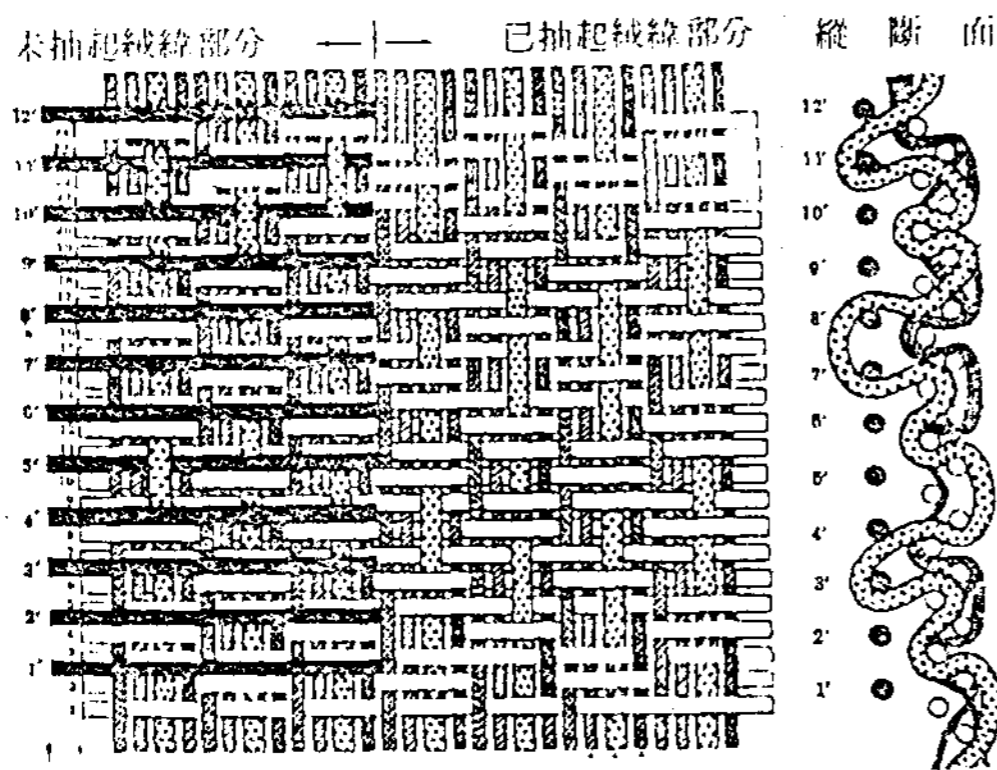


三色經錦組織圖



三色經錦組織剖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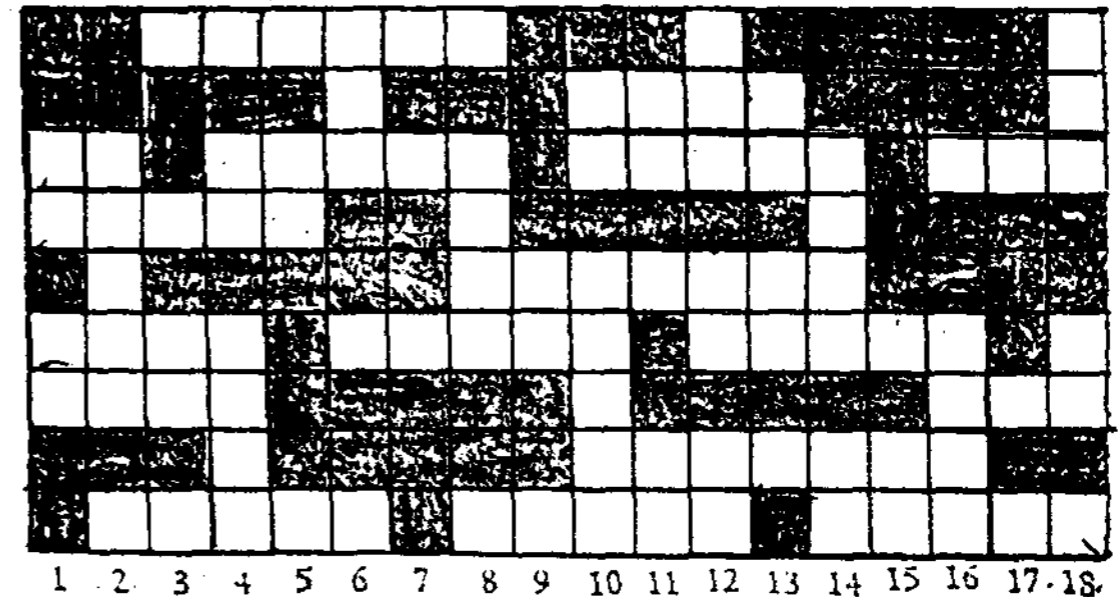
〈圖 7〉經錦의 조직도(中國歷代織染繡圖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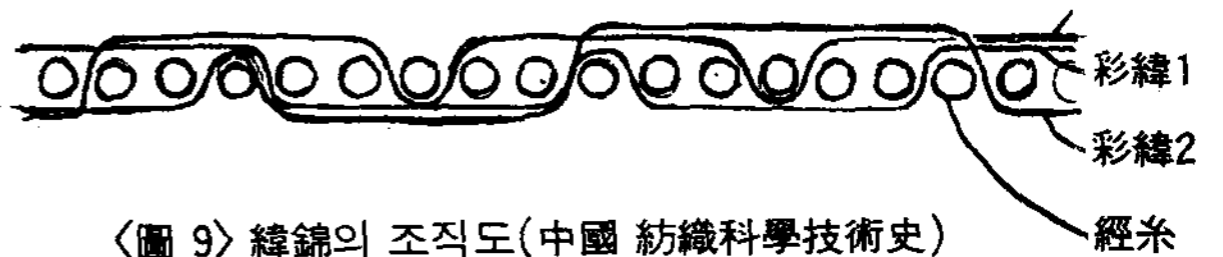
〈圖 8〉絨圈錦의 조직도(中國歷代織染繡圖錄)

緯錦은 唐부터 사용된 제직법으로 단색의 경사에 여러색의 위사로 문양을 제직하는 방법이다. 여러색

의 위사를 사용하기 위해 북의 색을 바꾸는 것은 경사의 색을 바꾸거나 경사를 덧붙이는 것보다 훨씬 편하기 때문에, 경금이 문양이 작고 변화가 없는것에 반하여 위금은 크고도 다양한 문양을 만들수 있었다. 이때 위사는 表緯와 裏緯로 나뉘어져 문양에 입체감을 나타낼 수 있었다.(圖9)



地緯



〈圖 9〉緯錦의 조직도(中國 紡織科學技術史)

織成錦은 平紋 혹은 斜紋으로 짜여진 바탕조직에 彩色緯絲를 사용하여 평문 혹은 斜紋의 무늬를 織入하는 방법으로 二重組織을 형성하고 있다.³⁰⁾

重錦은 宋代에 시작되어 매우 성행한 것으로 緯三重으로 무늬를 만드는 重緯織錦이다. 이때 經糸는 面輕과 底經의 이중으로 되어있으며 底經은 有色熟絲를, 面經은 本色生絲를 쓰고 위사는 여러색의 練絲를 쓴다. 底經은 地紋組織이되고 面經은 위사를 浮長시키는 結接經이되어 여러색의 경위사가 교차하는 것이 바탕천에 나타나지 않은 重錦이 된다. (圖10)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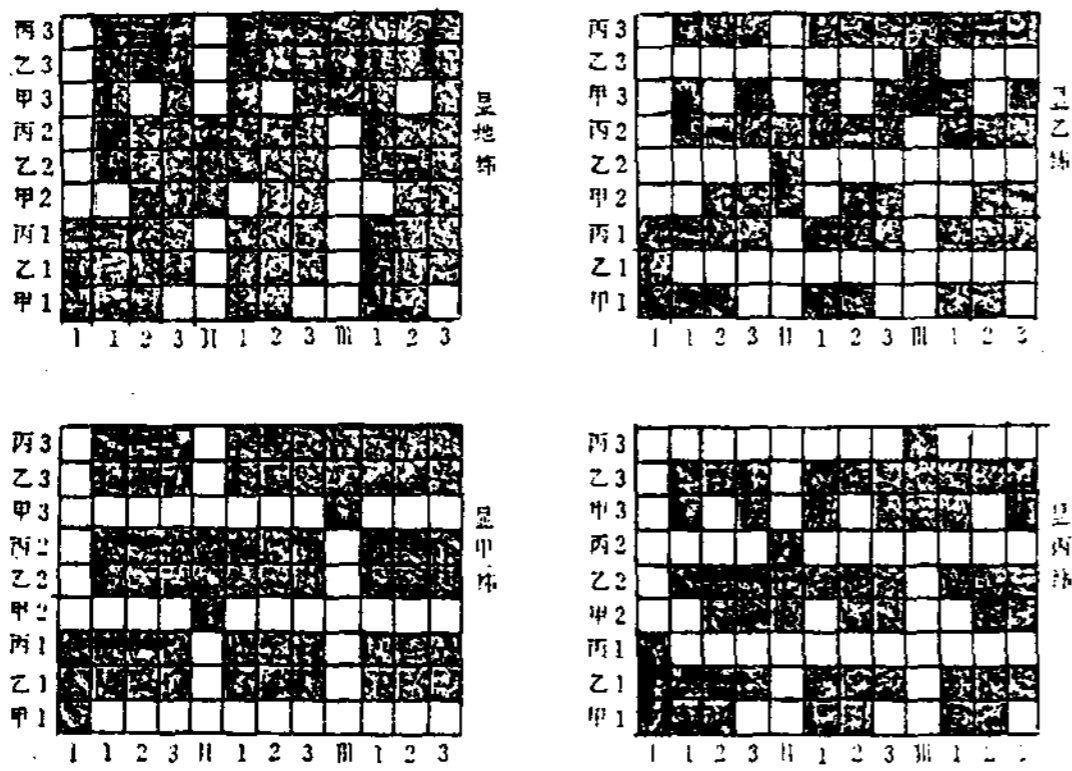
織金錦은 간단히 '織金'이라고도 하며 元代에는 보통 '納石失'이라고 불렀다. 즉 경사위에 彩糸로 직조하면서 무늬를 표현할 곳에 片金線이나 圓金線을 또다른 緯糸로 사용하여 무늬를 만드는 방법이

28) 高漢玉(1986) p243

29) 앞책,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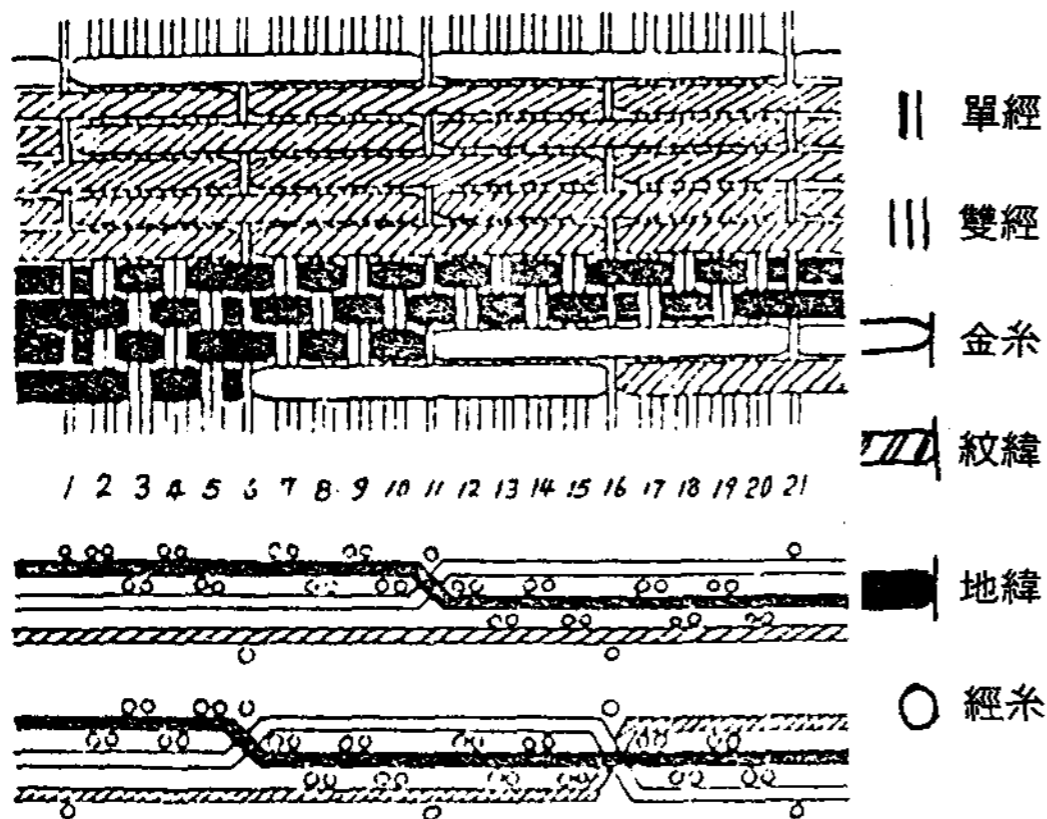
30) 앞책, p17

31) 陳維稷(1984), 앞책, pp363~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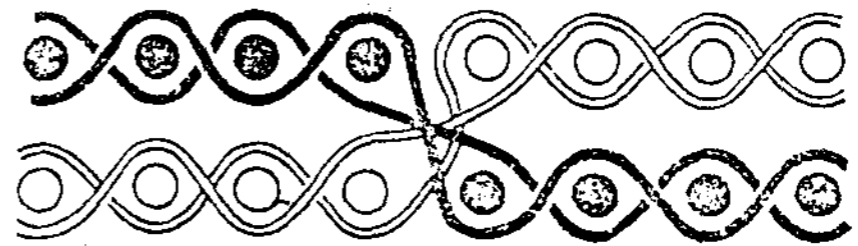
〈圖 10〉宋錦의 조직도(中國紡織科學技術史)

다. 金糸는 주로 종이위에 금박을 얇게 펴서 붙인다 음 실과 같이 가늘게 잘라 사용하였다. 織錦金은 女眞人이 중국북부를 통치후 시작되어 元代에 매우 유행한 제직법이다.³²⁾(圖11) 高麗史에 기록된 金銀線 織成錦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織金錦을 제직했음을 알 수 있으며 金糸대신에 銀糸 銅糸도 사용하였다.



〈圖 11〉織金錦의 조직도(中國歷代織染繡圖錄)

改機는 雙層錦이라고도 하며 明·靑時代에 유행한 제직법이다. 表裏를 平織으로하여 두층을 만들어 연결시키는 제직법으로 직물의 겉과 안이 兩色이 된다. 중국에서는 紫, 白 兩色으로 제직하는것이 유행이며 이를 紫白錦이라고 호칭하였다.³³⁾(圖12)



〈圖 12〉雙層錦의 組織部眠圖(中國歷代織染繡圖錄)

현대의 經緯二重平織으로된 兩面織物과 유사하다.

5. 綾

綾은 三國時代에 이미 內衣 袴 襪 坐子 수레장식 등 널리 사용되었으며 高麗時代에는 衣料뿐 아니라 벽, 침구 방석등의 실내 장식용으로도 사용되었다. 「東文選에 綾을 제직한 기록이 있으며 色綾, 生綾을 宋에 공물로 보내기도 하였으니³⁴⁾ 당시에 綾의 生産은 상당히 발달하였다고 생각된다. 문헌기록에서 발췌한 고려시대에 사용된 綾의 명칭은 黃綾, 白綾, 紫綾과 같이 색에 따른 것과 白綿綾 生綾과 같이 실의 종류에 따른 것과 花紋綾 小紋綾같이 문양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였다.

綾에 대한 풀이는 「釋名」에 “綾如泳淩之理”라 하며, 「方言」에 “布帛之細者曰綾”이라 하였고 「一切總音義」에는 “...綾似綺而細者”라 하였다.³⁵⁾ 이러한 문헌기록과 중국 출토직물을 종합하면 綾은 綺나 布帛보다 가늘고 치밀한 직물로 斜紋組織의 바탕에 斜紋 혹은 경사나 위사를 띄운 浮紋變化組織으로 무늬를 만든 직물이라고 생각한다. 高漢玉은 綾은 綺보다 늦게 제직된 직물로 綺를 기초로 하여 발전되었다고 한다.³⁶⁾

32) 앞책, pp 366~368

高漢玉(1986), p243

沈從文(1981), 「中國古代服飾研究」, (南天書局), p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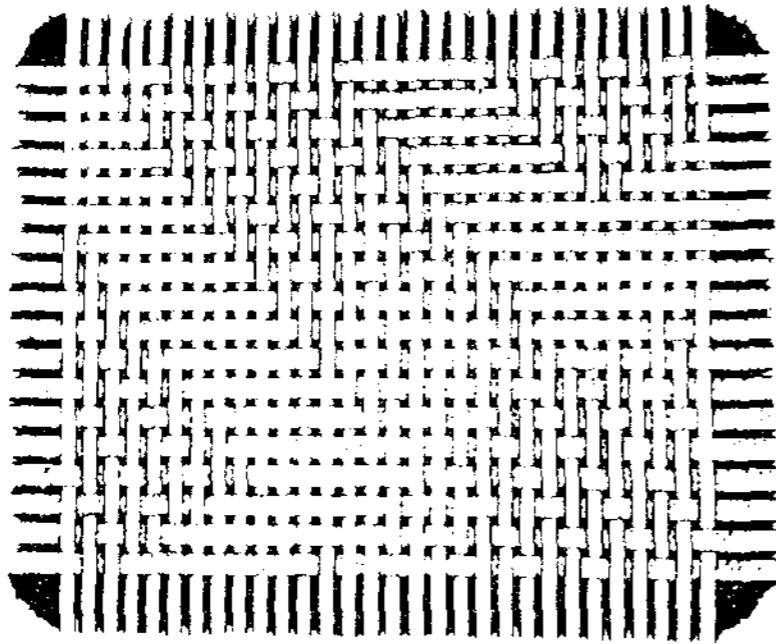
33) 앞책, p243, p18

34) 「高麗史」, 世家 卷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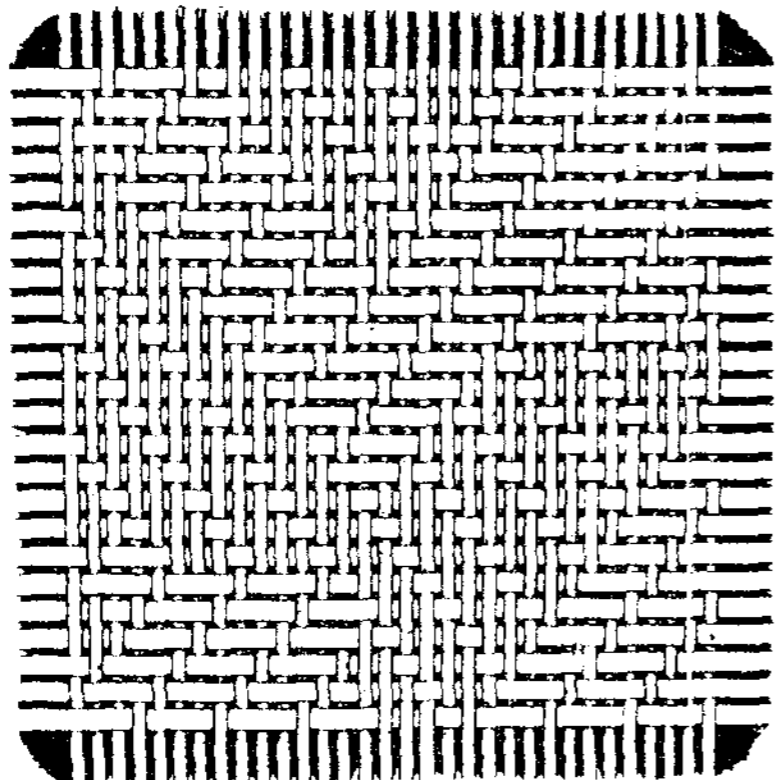
35) 민길자, 앞논문 p118

36) 高漢玉(1986), p16

綾의 종류는 同向綾과 異向綾으로 구분되는데 同向綾은 斜向이 같고 조직순환단위가 다른 經緯斜紋組織으로 바탕과 무늬를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이며, 異向綾은 斜向이 상반되고 순환단위는 같은 經緯斜紋組織으로 무늬와 바탕을 제작하는 것이다.³⁷⁾ 중국 출토직물의綾에 주로 사용된 斜紋組織을 바탕은 經三枚綾織이고 무늬는 緯三枚綾織이며 때로는 四枚綾, 五枚綾도 있다.(圖13) (圖14)



〈圖 13〉 同向綾의 조직도(中國歷代織染繡圖錄)



〈圖 14〉 異向綾의 조직도(中國歷代織染繡圖錄)

6. 綺

통일신라때에는 綺典을 두어 제작할 정도로 중요한 견직물이었던 綺는 고려시대에도 「東文選」에 色絲로 綺를 짜아 貴人士女들의 의복을 만들었다는

37) 앞책, p242

38) 앞책,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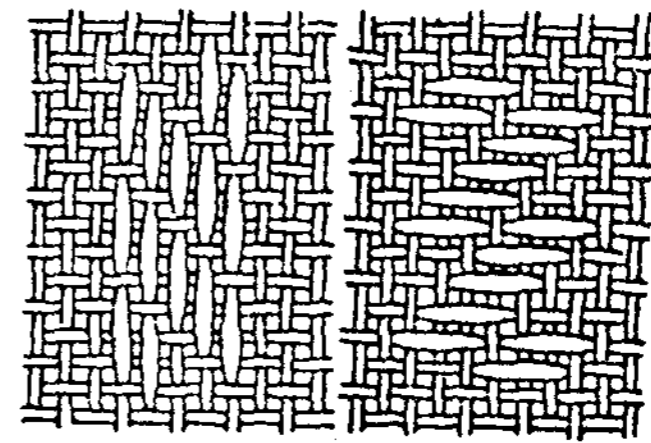
吳淑生 田自秉(1988), 앞책 p34

39) 陣維稷(1984)), 앞책, p.305

기록이 있다. 또한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通鑑」 등의 문헌에는 수차에 걸쳐 王이 下賜한 기록과 또는 王에게 進上하거나 교역품, 장식품, 의복에 사용된 기록을 볼 수 있으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綺의 기록은 찾기 어렵다. 이와같은 현상은 중국과 유사하다. 중국의 綺는 河南安陽殷墟에서 출토된 銅戈에 回紋의 綺와 雷紋의 綺의 흔적이 있어 商代부터 綺를 사용하였다고 하며 漢代의 출토직물은 매우 발전된 상태이었다.³⁸⁾ 唐·宋代에는 綺가 매우 유행하여 부드러운 의복용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元代에는 織金錦이 明·清代에는 緞이 압도적으로 유행하여 상대적으로 綺는 서서히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綺의 풀이는 「說文」에 “綺, 文繪也” 「蔣飭切韻」에서는 “綺似錦而薄者也”라 하며 「六書故」에는 “織采爲文曰錦, 織素爲文曰綺”라 하며 「釋名」에는 “綺, 歌也, 其文歌斜 不順經緯之縱橫”이라 하였다.³⁹⁾

문헌기록과 중국 일본의 출토유물을 종합하면 綺는 초기 발달된 직물로 무늬가 있는 견직물이다. 錦과 비교하면 錦보다는 부드럽고 얇아 일상 의복의 걸감및 안감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錦은 色絲로 무늬를 만드는 반면 綺는 주로 바탕과 같은색의 실로 짜여 조직에 변화를 주어 무늬를 표현한 것이다. 그 조직법은 지극히 초기적 단계로 바탕을 평직으로 하고 무늬부분은 斜紋 혹은 불규칙한 浮紋으로 표현하고 있다.(圖15)



〈圖 15〉 綺의 조직도(中國紡織科學技術史)

7. 緞

緞의 최초의 기록은 고려초기(945년) 惠宗때에

緞, 絹, 紬로서 동 시대의 중국과 같은 종류의 견직물을 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려한 무늬있는 직물보다는 단색직물이 일반화 되었고, 紋織은 貢物用이나 公卿과 士女들의 의복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다.

고려시대에 가장 유행된 絹織物은 羅로 생각되며, 錦, 綺, 綾도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고, 조선시대에 비해 緞, 紬, 絹, 紗의 사용은 적다고 생각된다.

고려시대에는 이미 현대의 三原組織인 平織, 綾織, 縐子織과 그 변화조직, 紗織과 縐織이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직물별 조직의 특성을 보면 羅는 현재의 紗織과 縐織으로된 직물로서 經糸를 서로 2~4올씩 꼬아서 고추모양의 구멍을 만들었다. 무늬 부분은 平織혹은 變化平織으로 한다. 현재의 갑사 숙고사 항라 순인등이 고려시대의 羅에 속하는 직물이다.

紗는 平織으로 매우 疎하게 짠 직물로 현재의 은조사 주아서 생주와 유사한 직물이다.

縐은 紗처럼 平織으로 만든 직물인데 실의 꼬임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주어 제직한후 煮練하여 주름효과를 갖는 직물로 현재의 크레이프드신(crepe-de-chine) 조오젯크레이프(georgette-crepe)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綾은 綾織과 變化綾織이 혼합된 직물이며 주로 綾織 바탕에 방향이나 경사도가 다른 綾織으로 무늬를 표현하였으며 絹이나 綺에 비하여 밀도가 높은 치밀한 직물이라 생각한다.

綺는 평직 바탕에 능직 혹은 불규칙한 浮紋으로 무늬를 짰다. 綺를 기초로하여 綾이 발전되었다고 하며 두 직물은 유사한데 綺는 불규칙한 조직으로 얇고 부드러우며 綾은 좀더 규칙적이며 치밀하다. 錦은 經糸緯糸에 色糸를 사용하여 무늬를 만드는데 平織 綾織 및 二重織과 변화 浮織이 사용되었다. 緞은 縐子織으로 제직하며 二重織과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무늬를 만들었다. 錦과 緞은 현재의 도비직물 자카드직물 이중직물의 전신으로 생각된다. 그밖에 絹, 紬, 縐, 縐, 縐, 素는 모두 平織의 織物로 실의 밀도 꼬임 굵기 정련상태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호칭된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발견됨에 따라 본 연구도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韓國書 및 論文

- 1) 「국역 고려도경」, 서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7
- 2) 「譯註高麗史」, 서울: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소, 1982
- 3) 「국역 고려사절요」, 서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7
- 4) 「국역 동문선」, 서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6
- 5) 姜信沆, 「鷄林類事: 高麗方言研究」,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0
- 6) 「老乞大 朴通事 諺解」, 영인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3
- 7) 민길자, “우리나라 古代織物研究”, 「教育論叢」 제2집 國民大學校 1982, pp. 103~118
- 8) 민길자, “織物의 種類에 관한 연구”, 「教育論叢」 제6집 國民大學校 1986, pp.289~303
- 9) 민길자, “한국전통직물의 纖維學的 特性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7
- 10) 朴京子, “福州南宋黃昇墓 出土服飾研究”, 「生活文化研究」 제3집 성신여자대학교 1988, pp. 1~34
- 11) 이양섭, “朝鮮時代 宮中衣服 染色研究” 「研究報告」 제11집, 建國大學校 1988, pp. 89~129
- 12) 「의류소재 II」, 한국의류학회, 1989

外國書 및 論文

- 13) 高漢玉, 「中國歷代織染繡圖錄」, 上海: 科學技術出版社, 1986
- 14)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台北: 南天書局有限公司, 1988
- 15) 吳淑生 田自秉(1988), 「中國梁織史」, 台北: 南天書局有限公司
- 16) 陣維稷, 「中國紡織科學技術史」, 北京: 科學出版社, 1984
- 17) 原田淑人, 「漢之朝 の 服飾」, 東京: 東洋文庫, 1961
- 18) 北村哲郎, 「日本 の 織物」, 東京: 源流社, 198

19) 山邊知行,「染織」,日本美術大系 VIII,東京:講談社,1961

20)「文物」,第2期,北京:文物出版社,1975

21)「絲綢之路」,北京:新疆維吾爾自治區博物館,1973

22)「織りの事典」,東京:朝日新聞社,1985